만주, 담론의 불안, 혹은 헤테로토피아*

- 1940년대 만주 소재 희곡, 유치진의 「흑룡강」을 중심으로 -

백승숙**

<차 례>

Ⅰ. 유치진과 두 개의 시위
Ⅱ. 「흑룡강」 분석
Ⅲ. 식민지 지식인의 만주 체험
Ⅳ. 흑룡강 소재 조선인 개척촌의 실제
Ⅴ. 헤테로토피아로서의 만주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문학사에서 친일문학의 신호탄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만주 소재 문학작품 가운데, 흑룡강성에 이주한 조선인 농민들의 삶을 극화한 유치진의 「흑룡강」을 대상으로 하여 만주의 의미 재정립을 시도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 작품을 분석하고, 유치진의 만주 여행을 통한 만주 인식을 살펴보고, 흑룡강 소재 조선인 개척촌의 실제를 들여다봄으로써, 헤테로토피아로서의 '만주'

* 이 논문은 2014년 1월 23일,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글로컬동아시아 문화콘텐츠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단 주최의 학술대회, '만주와 헤테로토피아'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개념에 다가가고자 한다.

극단 현대극장의 창립공연 작품으로서 「흑룡강」은 유치진이 '국민극'의 이상에 다가가고자 쓴 작품이다. 유치진은 이 작품에서 만주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 조선인들의 삶의 논리와 애환을 그려내는 데 집중함으로써 만주국 건국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오족협화의 이념이 만주국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입증해내고자 했다. 즉 삶/죽음의 이항대립을 통해, 만주담론에 흔히 적용되는 정치논리로서의 친일/항일의 이항대립을 비껴가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만주 소재 문학작품이 지닐 수 있는 복수적 의미를 발견해나가는 과정의 일단이라고 볼 수 있다.

유치진의 만주 여행기나 만주 개척촌 답사기를 통해 볼 때, 그는 만주에서 진보된 농촌공동체의 이상을 발견한 듯하다. 실제로 당시 흑룡강 소재 조선인 개척촌의 실제를 살펴볼 때, 만주의 조선인 마을 공동체는 '희망의 공동체'로 인식되었던 측면이 있다.

그것은 만주의 조선인 농촌공동체가 당시 일제의 제국주의적, 수탈적 농촌정책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지점이 있었고, 그것은 헤테로토피아적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푸코에 의하면, 헤테로토피아는 유토피아를 비추는 거울 이미지로서 존재한다. 조선의 작가들은 농본주의적 이상을 재현해내고 있는 만주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농촌문제가 지니는 생명성, 지속가능성 등이 작가들을 고무했고, 일제가 헤테로토피아적 공간, 만주에 부여했던 다양한 상상력들은 조선의 작가들이 급격하게 친일로 돌아서는 데 명분을 선사해 주었던 것이다.

주제어: 만주, 헤테로토피아, 유치진, 개척촌, 흑룡강

> 헤테로토피아는 불안을 야기하는데, 이는 아마 헤테로토피아가 언어를 은밀히 전복하고, 이것과 저것에 이름 붙이기를 방해하고, 보통 명사들을 무효가 되게 하거나 뒤얽히게 하고, '통사법'을, 그것도 문장을 구성하는 통사법뿐만 아니라 말과 사물을 (서로 나란히 마주보는 상태로) '함께 붙어 있게' 하는 덜 명백한 통사법까지 사전에 무너뜨리기 때문일 것이다. (미셸 푸코, 『말과 사물』, pp. 11-12)[1]

1. 유치진과 두 개의 시위

한국문학사에서 '만주'라는 이름은 일종의 헤테로토피아로서 담론의 질서를 교란하는 '불안'이자 때로는 '공포'로서 존재해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주가 한국문학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 원초적 질문에서부터, 소위 '만주개척문학'이란 본격 친일문학의 신호탄인데 이 연구가 한국문학의 민족 문학적 순수성을 흐려놓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이르기까지 '만주'라는 이름은 한국문학사의 고른 위계를 어지럽히는 이단자의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와 관련된 한국문학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세계적 냉전체제의 와해와 더불어 한국사회에 존속해 있던 강력한 이념지향이 완화되는 시점과 때를 같이 하여 만주 지역 연구에 새롭게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던 것이 사실이다. 한민족의 고토이자 항일독립운동의 근거지이면서, 한편으로 전시체제기, 자발적 친일의 지표로 작용하기도 했던 만주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라는 과거사가 한국인의 현재적 삶 속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

1) 미셸 푸코, 이규현 역, 『말과 사물』, 민음사, 2012, pp. 11-12.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07년 6월, 경남 통영에서 열린 '한국 신극 100년사에 미친 동랑의 영향'이라는 제하의 심포지엄[2]을 둘러싸고, 두 개의 시위가 열렸다. 하나는 유치진의 친일 행적에 대한 연구발표에 항의하는 유족들의 시위였고, 다른 하나는 유치진 추모 행사 자체에 대해 항의하는 민족문제연구소 경남지부의 시위였다.[3] 이는 일제강점기에 싹이 터서 해방기에 꽃피었다가 남북한 분단으로 말미암아 잠복기에 접어든 좌우 이념 대립이 여전히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상존해 있음을 보여주는 비근한 예 중, 하나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시위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유치진의 경우, 그의 친일은 '만주' 소재 희곡 「흑룡강」에서부터 촉발되었다. 그는 두 달여간의 만주 시찰 후에 「흑룡강」을 현대극장의 창립극 공연용으로 발표하면서 '국민극'의 기치를 올리기 시작했다. 「흑룡강」은 만주 소재 흑룡강성에 이주한 조선인 농민들의 삶을 극화한 작품이고, 비슷한 시기에 나온 「대지의 아들」은 이기영이 두 달여간 만주를 여행한 후에 쓴 장편개척소설로서 '개척소설'의 봉화를 올린 작품으로 평가받은 작품이다. 이와 같이, 만주 소재 작품들이 소설과 희곡에서 1940년대 친일문학의

---

2) 이 심포지엄은 '2007 통영 전국 소극장 축제'를 개최한 극단 '벅수골'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통영시, 한국연극협회 등의 후원을 받아 열게 된 것으로, 동랑 유치진을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6월 30일 오후, 통영 남망산 기슭에 있는 통영시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3) "죽은 친일망령을 누가 다시 불러오는가. 미국 의회는 일본정부에게 사과 촉구하는데, 한국 통영시는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가."(민족문제연구소 경남서부지회).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10여 명은 유치진의 친일행적을 담은 유인물을 행사장인 통영 시민문화회관 소극장 안으로 들어가 나눠 주기도 했으며, 통영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행사장 입구에 들고 서 있기도 했다.(윤성효・김진석, 『오마이뉴스』, 2007년 6월 30일자 기사 참조.)

선봉에 선 작품들이 된 것이다.

이는 물론 당시 일제가 만주국을 통해 태평양전쟁 수행을 위한 식량과 물자의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때라, 일제정책을 따르기 위해, 작가들이 선택한 소재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친일문학이 어떻게 만주와 연관되어 시작되었는지는 숙고해 볼 만한 여지가 있을 것이다.

유치진의 「흑룡강」에 대해서는 그간 몇몇 연구자들의 평가가 있어 왔다. 대표적인 연구로자는 김재석[4], 이상우[5], 이재명[6] 등이 있다. 한편, 문경연의 논문은 「흑룡강」을 만주와 관련하여 언급하기보다는 유치진이 그의 국민극 구상을 이 작품에서 얼마나 구현해내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논문은 「흑룡강」이 "작품 창작에서부터 공연 준비, 실제 공연과 이후 사회반응까지 전과정이 기획되고 보고되는 방식으로 탄생하였고, '통제'의 매커니즘 안에서 태어난 국책극의 전형을 보여주었다"[7]고 평하면서, "현대극장이 '국민연극의 봉화'임을 자처한 작품이었고, 실제로 국민연극 운동의 첫 결실이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되, 만주를 보는 또 다른 관점을 마련하기 위해 본고는 '헤테로토피아로서의 만주' 개념에 다가서 보고자 한다.[8]

---

4) 김재석, 「흑룡강」에 나타난 계몽선전의 기법과 작가적 의미」, 『한국연극학의 위상』, 태학사, 2002.

5) 이상우, 『유치진 연구』, 태학사, 1996.
_____, 「1940년대 현대극장과 친일극」,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38, 2001.
_____, 『근대극의 풍경』, 태학사, 2004.
_____, 식민지 극장의 연기된 모더니티』, 소명출판, 2010.

6) 이재명, 「유치진 희곡의 인물형상화 연구 - 해방 전에 발표한 장막극을 중심으로 -」, 한국연극학회, 『한국연극학』 28, 2006.

7) 문경연, 「1940년대 국민연극과 친일협력의 논리 : 유치진을 중심으로」, 한국드라마학회, 『드라마연구』 29, 2008, p. 69.

8) 이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흑룡강」분석

1941년 겨울, 유치진은 총독부 자금으로 극단 현대극장을 창단하였다.

> 나는 극단을 만들고 나서 곧바로 창립공연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창립 공연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가 후원키로 되어 있었으니 작품의 제재는 명약관화한 것이었다. 총독부의 권유대로 분촌 정책(分寸政策)을 주제로 한 작품을 써야 했다.[9]

위와 같은 그의 회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극단 현대극장의 창단과 더불어 그 창립 공연을 위해 쓴 작품이 희곡「흑룡강」이다.[10] 유치진은 1941년 6월 5일자『매일신보』에서「국민연

손승회,「다치바나 시라키(橘樸: 1881~1945)와 滿洲國 建國 구상 - 헤테로토피아(Hetertopia)로서의 만주를 꿈꾸며 -」, 동아인문학회,『동아인문학』28, 2014.
노상래,「헤테로토피아, 제3의 눈으로 읽는 만주 - 현경준의「유맹」을 중심으로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인문연구』70, 2014.
서재길,「나운규 영화와 만주 - 〈사랑을 차저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인문연구』70, 2014.
곽은희,「틈새의 헤테로토피아」,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인문연구』70, 2014.
이영희,「일본소설 속의 헤테로화(化)하는 공간, 만주 - 투영(投影), 반전(反轉), 이질성(異質性)의 병치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인문연구』70, 2014.
홍은숙,「A Journey into Heterotopia: Non-linear and Discursive Spaces in the Manchurian Western The Good, The Bad, The Weird and the Spaghetti Western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인문연구』70, 2014.
김미경,「상상계와 현상계의 사이: 헤테로토피아로서의 하얼빈」,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인문연구』70, 2014.

9) 유치진: 구술, 유민영: 정리,「극단 현대극장의 탄생 전후」,『동랑 유치진 전집』9, 서울예대출판부, 1988, p. 159.

10) 이 작품의 공연 상황에 관해서는 (이상우, 앞의 논문, p. 380)을 참조할 것.

극 「흑룡강」의 구상화문제=흑룡강 상연에 제하야-」라는 글을 통해, 이 작품이 "국민극으로서의 내 시작"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흑룡강이 국민극수립이란 이상에대해서 어떤 구체적인암시나마 준다면 만족"이라고 마무리를 지었다. 이 글의 분위기로 보건대, 유치진은 국민연극의 전범으로서 「흑룡강」을 내놓으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 '국민연극'이라는 이상의 실현을 위해 충분히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내용문제, 형식문제, 대관중문제의 세 가지 차원에서 「흑룡강」 공연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먼저 내용 문제에서는 "만주사변부터 그 건국에 이르기까지의 가진고난중에도 힘처게 버친 만주건국에의 이념을 주제로하야 민족상극에서 민족협화로발전되는 대동아건설의 국가이상의 일단을 구상화해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생경한 국가이념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만주여러민족의 고투"를 동시에 그림으로써 "예술적 향훈"과 "감동"을 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 형식문제에서는 "선이 굴고거칠고 직선적인 것! 말하자면 서양화적인 것"을 추구하였다고 했다. '소박하고 거칠고 야성적인 것을 리앨한면에서 취하야 대륙기질의 다이나미크한 진박력을 낭만에까지 벗게하려' 함으로써 '과거의 예술지상주의적인 작품'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대관중문제"에서는 "일반국민"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문학적인 면에도 힘을 썻지만 극장적인면에도 적지안은 힘을 썻다"고 하였다. 이는 과거 "신극이나 흥행극의 오류를 거듭하게 될 염려"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유치진은 '국민연극'의 이상에 다가가기 위해 다각적인 배려를 하고 있으며, 그것이 「흑룡강」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만주사변이 일어난 이듬해, 즉 1932년, 만주국 건국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던 때이며, 공간적 배경은

북만(北滿)의 집단부락 건설 예정지이다. 1막은 만주사변 때의 정황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변 당시, 재만 조선인들은 일본 영사관의 도움을 받았으며, 장학량의 지시를 받는 중국인들의 미움을 받아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다. 여기서는 조선인, 일본인, 만주인, 몽고인/중국인의 대치상황을 보여준다. 그 와중에 만주국이 건설된다는 풍문이 떠돌고 있다.

> 星天: 비가 와야 땅이 구더지드시 피를 흘려야 나라가 자리잽힌답니다. 이 땅에 그만한 경난이 있엇기에 만주국이라는 새 나라두 생기게 되지 안헛서요.
> 賈以南: 만주국이라니요?
> 星天: 아즉 못 들어섯수? 宣統帝께서 새 나라의 임금이 되신대요.
> 賈以南: 宣統帝께서요? 滿洲의 主人이 滿洲로 돌아오십니다 그려. 宣統帝께선 저와 같은 滿洲族이거든요.
> 星天: 老賈, 지낸 일은 물론허구 앞흐루 만히 도아주세요. 아모리 세상이 디집혀두 만주에선 당신네들은 권이구 우린 나그넵니다.
> 賈以南: 그러케 사양하실 게 뭡니까? 우리가 만주국 국민이 된다문 당신네들두 만주국 국민이죠. 다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젓서요. 인젠 새 나랄 위해서 가치 힘씁시다.[11] (pp. 342-343)

위는 재만 조선인인 성천과 만주인인 고이남의 대화이다. 이는 만주국 건국 당시, 일본이 내세웠던 오족협화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12] 이들이 만주국 건국에 대해 희망을 제시하는 가운데, 극은 만주 땅에서 이루어지는 농사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간다.

---

11) (김태진 외, 이재명 외 편, 『해방전공연희곡집(1940~1945)』 4권, 평민사, 2004)의 별쇄본, 『유치진 희곡』에서 인용함. 이하 페이지만 인용.

12) 이재명은 유치진이 만들어낸 주동인물이 성천에 이르러 현실저항적인 아웃사이더에서 어느새 지극히 현실참여적인 친일 지도자로 탈바꿈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재명, 앞의 논문, p. 202.)

星天: 다른 덴 어디 별 데가 있습듸까? 여긴 물두 흔하구 땅두 좃수. 인젠 천하는 평정됐겟다 품이 째서 그러치 손포만 마즈문 조흔 수출을 내서 으젓하게 살 수 잇수 만주에선 뭐니뭐니 해두 농사짓는 게 제일예요.

어떤青年: 그럴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어떠케 해야 참되게 사느냐? 그게 문제야요.

星天: 나두 그걸 찾구 잇수. 허지만 진리란 生活 속에 있잔을까요. 사라가문서 우린 우리의 갈 길을 찾아야 해요. (p. 345)

이가둔에서 겨우 난리를 피해 성천의 마을에 당도한 '어떤청년'과 '성천'의 대화 속에서 이들이 국가권력의 동향과 관계없이 농사를 통해 자신의 생활을 찾아나가려는 삶의 전략을 지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생의 논리는 이 작품 전반에 녹아들어 있다.

星天: 령사관은 우리의 은인유. 우리가 張學良의 군사헌테 쪽여 단일 때 마츰 할빈 영사관에 수용이 됏섯기에 망정이지 그러치 안헛스문 떼죽엄햇죠. (p. 347)

朴先生: 성천아 울지 말아라. 젊은 기상에 분하기야 하겟지만 개면 어때? 사람이란 살구 볼일이야. 이번 란리에 우린 살려구 얼마나 해썻나. 張學良의 군사한테 쪽여서 달장간을 산으로 강으로 헤매며 냉수만 먹든 땔 생각해 봐라. 싱거운 냉수만 먹으니까 짠 게 먹굽어 우린 제 살을 할지 안헛섯나? 그 사람은 아즉두 사는 맛을 못 봐서 허는 소리다. 아무리 짓밟혀두 살려는 게 사람이다. (p. 348)

위의 대사들은 일본 영사관에 숨어서 살아남은 조선인들이 중국인들의 친일 비난에 대해 내놓는 대답이다. 이 극에서 조선인들은 중국인들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만주사변 당시,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의 갈등이 첨예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여전히 살기 위해서 만주 땅을 떠날 수 없다.

> 吉甫: 딱헌 소리지. 우리더라 몇 십 년 해먹은 농토를 두고 나가라니 어딜 가나 갈 데가 잇서야 가죠. 그래 죽엇스면 죽엇지 이 만주땅에선 비텨서진 못하겟다구 버텟지요. 그랫더니 총부리로 우리 형님의 앙가슴팩이를 사정업시 칩니다 그려. 단번에 폭 쓰러졌죠. 말마세요. 입에서 싯뻘건 피가 흐르는데- 에이 참 아즉두 피가 묻엇군 그래.(하면서 德三의 입가의 말러부튼 피를 써서준다.) (p. 351)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만주국이 건설되는 것과 관계없이, 조선을 떠나 만주에까지 흘러와서 살게 된 조선인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고, 몇 십 년 개간한 농토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다. 그들의 만주행은 기아를 피해 목숨을 건 탈주를 감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폭압적인 식민통치로부터 다소나마 벗어나 생존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13] 이러한 그들의 실존적 현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유치진은 만주의 조선인들을 변호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은 그들의 친일 행위에 대한 변명으로 해석될 여지 또한 충분하다.

2막의 배경은 만주 토호 장거강의 집이다. 그는 장작림을 친구

---

13) "만주 땅에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세기 중엽부터였다. 북부 조선 농민들이 기아를 탈출하려고 만주 땅으로 탈주를 감행하면서 시작되었다.(p. 200) … 1910년 일제의 조선 강점으로 인하여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되자, 조선인의 이주는 독립국조선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에서 중국의 만주지역으로 이주하는 국제 이민이 되었다. 대륙침략을 기도하는 일제의 제국주의와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의 민족주의가 충돌하는 국제적 환경은 조선인 이민들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pp. 200-201)(김기훈, 「만주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제국내 이민 intra-colonial migration 정책의 유산」, 한석정·노기식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2008.)

라고 여기는 인물이다.

> 梁七山: 놈들은 우리의 원수예요. 지낸 란리에 雙城整에서 쫓겨온 東北軍이 여기 숨어 있는 줄을 일군이 어떠케 알앗겟수. 조선 놈들이 다 가르켜 준 거얘요. 그래서 전멸을 당헌 겁니다. 대채 농민이란 군대보다 더 무서운 눈들이얘요. 군대는 전장만 끗나문 본국으로 다 돌아가지만 농민이란 소진득이 모양으로 땅에 부터서 끗까지 땅기운을 빨아먹거든요. 우린 어떠케 해서라두 조선 농민을 이 땅에 발을 못 부치게 해야 합니다. 이 주테에다가 大人께서 도장만 하나 찍어주세요. 그러문 이걸 핑계루 난 놈들을 다 쪼처낼 테얘요. (p. 360)

위 양칠산의 대사는 친일을 한 조선인을 '원수'로 여기는 친중파의 민심을 대변하는 한편, 아래 성천의 대사는 수전을 개척함으로써 만주 땅을 '문전옥답'으로 만든 데 대한 조선인들의 변에 해당한다.

> 星天: 우리가 그 땅을 일궈 노키 전꺼정은 이 黑龍江 연안은 장마가 지문 날래 퇴수[退水] 두 안되는 삭카리[低濕地] 엿섯쇼. 그런 걸 우리가 四十里 밖에서 보ㅅ물을 끄으러 들이구 三十里 밖으로 퇴수ㅅ도랑을 냇소. 그나 그뿐이요. 우리가 애초에 그 땅에 발을 드려 놧슬 적에는 그 일판은 마적의 소굴이엿소. 대낮에두 사람이 지내가질 못 햇죠. 그런 걸 우린 바른손에 싸창을 잡구 왼손엔 광초[삽]를 들구서 그 넓은 땅을 다 개간해 내지 안 햇소. 그래서 오늘날 같은 문전옥답을 맹그러 냇단 말이얘요. (p. 362)

여기서도 작가는 만주에서 살아가는 조선 농민의 특수한 생존방식에 대해 언급해놓았다. 그리고 흑룡강이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농토를 개척하여 먹거리를 만들어낸 농민들의 생활사를 부각하고자 하였다.

3막에서도 조선에 대한 향수와 만주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조선인 농민들의 애환이 그려진다.

德三: 우리는 압록강만 건느면 살길이 환이 틜 줄만 알엇다. 헌데 이게 뭐야! 몇 십 년을 살어도 노상 이 모양. 그래도 우리는 살어야 허지 이게 무슨 어번이랴!

蓮: 아버지 조선이 조흔 줄은 인제야 아섯서요? 조선이 조코 아름답길래 아름다운 조선을 지킬려고 우리가 여기서 고생을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여길 못 지키면 아름다운 조선도 급기야는 도적의 나라가 되고 만답니다. 저 북쪽 黑龍江 밖에는 틈만 있으면 몰려들려고 지금 도적에 떼가 웅성그리고 잇대요. 우리는 제 고향을 사랑하길래 여기서 죽기를 맹세합니다. 여기가 조선과 같이 마음 노코 살 수 잇슬 때까지는 결단코 고향은 생각지 맙 시다. 그래야 다른 어른들이 마음 노코 밖알 일을 하지 안켓세요? 모두들 기를 쓰구 일을 해서 여기두 자리를 잡다 노흐문 조선보다 나엇스문 못 허진 안흘 대래요. 여긴 춥기는 하지만 수백 년 동안 거름이 돼서 살이 포동포동이 진 밭, 수수를 심으면 두 길 세 길씩 크고 조를 심으면 빨래 방망이 같은 이삭이 줄줄이 열이고- 이러케 건 땅은 조선엔 업대요. 그나 그뿐이애요? 몇일을 걸어도 끝업는 들이 하늘 끝까지 다치 안헛서요? 여기가 자리만 잡히면 조선과 같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몇 십 개 생길른지 모른대요. 아버지 조곰만 더- 참으세요. 인제 이 땅에도 새 나라가 생기지 안어요. (pp. 371-372)

위 대사에는 곡식 농사가 잘 되는 만주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새 나라'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드러나 있다. 이 작품에서 그려지고 있는 '도적'이나 '마적'이라는 표현 속에 조선 독립군이 포함되어 있음이 사실이다.[14]

14) 일제는 조선독립군을 선비(鮮匪), 공산 게릴라를 공비(共匪), 토착 항일

學昌: (滿洲里를 안는다) 괜찬다 가만 있어. 테병이 아니고 마침 마적들이니까 우릴 해하지는 안흘 꺼야 달라는 대로 잇는 거나 내주면-' (p. 375)

위 대사가 이를 증명해 준다. 만주의 조선 농민들 중에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갖은 고초를 겪으며 투쟁하고 있는 독립군을 적으로 규정하고, 일제에 부응하여 만주국 건국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었다. 당시 유치진 또한 이러한 입장에 서 있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그가 '친일 문인'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 하겠다. 본고는 유치진의 친일여부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일 담론 속에 들어 있는 논리를 들여다봄으로써, 그것이 당시 만주의 현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탐구하려는 것이다.

3막에서는 장학량의 테군과 조선인들의 직접적인 충돌 장면이 그려지면서 성천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절정의 긴장을 조성하면서 막이 내린다. 4막에서는 테병에 대한 조선 농민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집主人: 에그 대인두 도적이 노리는 건 재물허구 무기하구 그리고 여자가 아니얘요. 더구나 아씨의 인물이 일색이란 소문이 하도 자자하니까 테병놈들이 잔뜩 탐을 낸 거겟죠. (p.384)

梁七山: 두 말 할 것 잇나. 이번 태병은 처째 동리에 들와서 재물을 빼앗구 둘째루 수 일본 하는 놈은 모조리 쫓아낸 걸. (p. 385)

민중을 토비(土匪), 항일 만주군벌을 병비(兵匪), 대도회(大刀會)와 같은 항일교단을 교비(敎匪), 홍창회(紅槍會)와 같은 항일 결사원을 회비(會匪)라 하면서, 그 전체를 '비적'이라 총칭했다.(임종국, 「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 pp. 6-7.)

이 작품에서 조선인 농민들은 친일, 반중 노선을 따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만주 퇴병과 적대적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賈以南: 테군을 잡자문 조선 사람과 짜야 합니다. 때 마츰 테군한테 쪽여서 조선 사람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애요. 그들의 울분은 하늘에 빼첫습니다. 인제는 조선 사람들의 원수가 우리 의 원수애요. 그 사람들만 앞장 세우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안코 테군을 잡을 수 있서요.

土豪: 그만 두게. 손에 무기 하나 없고 게다가 끼니를 굶어서 기진맥진한 놈들하고 짜면 뭘 해?

賈以南: 그 사람들의 배후에는 수백만의 일군이 있지 안습니까?

(p. 387)

위 대사가 그 노선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壽鐵: 우리의 분한 것을 두고 말하자면 단박에 군대를 불러서 묻지르고 십소. 허지만 그 뒤가 무섭소. 지낸 사변 때만 해도 이 땅에 군대가 들어온 것은 우리의 농간이라고 동리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심지어 양식까지도 안 팔지 안헛소. 이런 후환을 또 어찌 격는단 말요. 미우나 고우나 이 땅이 아니면 우리는 발을 부치고 살 떼가 없는 사람이랍니다. 우리는 이대로 견디지오. 령사관에서도 견디는 사람이 최후에 익이는 사람이라 햇다오. (pp. 395-396)

전반적으로 조선인들의 친일 논란으로 당시 만주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조선 농민들의 사정이 그려져 있고, 실제로 조선 농민과 일본 영사관의 친밀도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여기에서도 끝까지 조선인들의 생존 논리가 등장한다. “이 땅이 아니면 우리는 발을 부치고 살 떼가 없는 사람”이라는 호소야말로 유치진의 간곡한 생존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만주 토호는 자신의 애인 종월을 잡아간 퇴군에 대한 배신감으로 성천과 손을 잡게 되는 것으로 4막은 끝이 난다. 이로써 중국 퇴군에 대항하여 만주인과 조선인의 연합이 이루어진 셈이 되는 것이다. 제5막의 배경은 퇴군의 두목인 호만복의 거처다.

> 胡隊長: 우리끼리 말이지만 조선인에 對한 우리 張司令의 정책이 애당초에 틀렷섯서. 작년 봄만 해두 사령께서 괜한 유언비어를 꾸며 갖이구 萬宝山 事件을 터트려서 무고한 조선 농민을 못살게 굴잔엇나. 조선인의 우리에 대한 생각이 확변한 건 그 때문야. 허지만 어차피 한번 폭발된 事件이니 이를 게기로 전만에 산재한 꺼우리를 모조리 잡아 없애야 할 꺼야. 그걸 흐지부지 내버려 뒷다간 또 어떤 꼴을 볼는지 몰라. (p. 403)

위 대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만보산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다. 호만복(胡隊長)이 '만보산 사건'에 대해, 장학량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바람에 무고한 조선 농민들이 중국인들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그는 "민국 군대(民國 軍隊)는 세계 제일 가는 강병"(p. 402)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위와 같이 '전 만주에 산재해 있는 꺼우리(조선인)들을 모조리 잡아 없애야'한다고 강변한다. 이것은 '만보산 사건'으로 인해 조선인들이 원한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흐지부지 내버려 뒀다간" 그들이 위험해질 것을 두려워해서이다. 결국에는, 호만복과 성천의 일전이 시작되고, 호만복의 자살과 성천의 승리로 극은 종결된다.

> 星天: 올흔 말야. 너이들이 胡萬福이헌테 홀려 다녓다문 胡万福이는 張學良이헌테 홀리구 張學良이는 蔣介石이헌테 홀렷서. 蔣介石이를 사로잡고 잇는 것은 더 큰 독개비다. 우린 그걸 마자 잡아야 한다. 알겟니? (p. 415)

성천이 잡힌 퇴군들을 향해 하는 말이다. 확고한 반중국 노선을 피력하면서, 만주국가가 울려 퍼지고 일장기와 오색기가 나부끼는 가운데 막이 내린다. 누가 봐도 명백한 반중친일극이다. 한편, 이 극은 뚜렷한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되어 있다.

> 土豪: 이 땅에 죄악의 씨를 모조리 뭇지를 수만 잇다면 내게는 柊月이만이 인젠 문제가 아니다. (p. 400)

> 朴大圭 난 널 때린 게 아니라, 악을 때린 거야. 이 더런 놈들아. 眞實이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차디찬 맛을 뵈 줄 테니까 정신채려라. (p. 410)

위 예문에서처럼 중국 퇴군은 '죄악', '악'으로, 조선과 일본은 '선', '진실'로 규정되고 있다. 1941년에 발표된 이 극은 그로부터 10년 전에 해당되는 1932년의 상황을 거론하면서 그 내부에서 조선인 농민들의 입장과 그들이 겪은 상황 등을 서술함으로써 만주국 건국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오족협화라든지, 일제의 대동아 구상을 뒷받침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에서 유치진은 벼농사에 관해 세부적인 지식을 드러내기도 하고, 중국인들의 미움과 위협 속에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친일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농사를 위해 개척과 개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조선인들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같이, 유치진의 「흑룡강」이 구사한 희곡적 담론 전략은 삶/죽음의 이항대립으로 친일/항일의 담론구도를 뛰어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작품은 친일을 표방하면서 한편으로 한민족의 삶을 옹호하고, 또한 우선시한 작품이기도 한 것이다.

3. 식민지 지식인의 만주 체험

유치진의 「흑룡강」은 그가 1940년 만주 노야령(老爺嶺)에 3개월간 체류하면서 시찰 당시 실제로 조사하고 견문 체험한 만주의 풍물, 생활을 2개년에 걸쳐 오랫동안 작업하고 5회의 수정을 거친, 3부작[15]의 1부로 소개되었다[16]고 한다. 이상우는 이 3부작이 당시 일본에서 유행한 이른바 '개척문학(開拓文學)'의 일환이었으며, 그가 만주 개척을 소재로 한 개척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자신의 만주 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17] 이상우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본고는 유치진 자신의 만주 체험과 함께 흑룡강성 개척촌 주민들의 생활 실제에 접근해보는 것이 이 작품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

1) 첫 번째 만주 여행: 「대륙인식(大陸認識)」[18]

유치진은 1940년 『인문평론(人文評論)』 7월호에 「대륙인식(大陸認識)」이라는 제목 하에 당시로부터 '5, 6년 전'으로 그가 기억하고 있는 만주여행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그때 극예술연구회주최의 연극강연차로 이헌구, 김광섭, 양형과 가치 서선지방으로 간 일이 있었다. 우리 일행은 신의주에서의 강연을 마치고 신의주에 있는 장기제, 채정한 양형의 안내로 국경을 넘어-국

15) 3부작이란 「黑龍江」, 「北進隊」, 「대추나무」를 일컫는 것이다.

16) 「新劇 黑龍江 公演報告」, 『三千里』, 1941. 7. (문경연, 「1940년대 국민연극과 친일협력의 논리 - 유치진을 중심으로 -」, 한국드라마학회, 『드라마연구』 29, 2008. 12, p. 68에서 재인용)

17) 이상우, 앞의 논문, p. 385.

18) 유치진, 「大陸認識」, 『人文評論』 7월호, 1940.

경을 넘었대도 철교하나지만-안동시가지를 밟었다.[19]

위 글로 보아, 유치진의 만주 여행은 1934, 5년경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인들의 만주 여행이 1930년대 중반 무렵에 자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함대훈의 「남북만주편답기(南北滿洲遍踏紀)」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찾아볼 수 있다.

> 이번 〈조광〉에 만주 문제 특집호를 내려는 계획과 아울러 만주의 일반 문화를 한번 보고 오라는 사명을 받고 나는 한편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책임이 중대하여 희열과 긴장 속에 하룻밤을 지내고 5월 13일 오후 3시 20분 경성발 신경행 특급 '노조미' 2등실 한 자리에 앉게 되었다.[20]

함대훈은 이 시기를 "만주 건국 이래 6년의 세월이 흐른 금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기 즈음해서, 일제가 만주국의 발전상을 선전하기 위해 문인들을 비롯한 문화인들의 만주 여행을 독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치진은 이 여행에 대해 "이것이 나의 맨 첫번의 외국(外國) 구경"이라고 하면서 "지나인(支那人)의 엑소틱한 생활은 나를 魅惑하였다"라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노천상점에서 일하는 상인들의"장사하는 양이란 마치 전쟁하는 것 같다. 무슨 소린지 꽥꽥 지르며 찬바람이 나게스리 민첩하고 재빠르게 장사를 한다. 만만디 하고 우둔하게만 생각하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 내 몸에는 소으름이 기친다"[21] 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지나민족은 다른민족에 지지 않을만큼 투쟁적이오 현실적이오 활동적이다"[22]고 평하면서 '지나

19) 유치진, 앞의 글, p. 99.
20) 함대훈, 「南北滿洲遍踏紀」, 최삼룡 · 허경진 편, 『만주기행문』, p. 115.
21) 유치진, 위의 글, p. 100.
22) 유치진, 위의 글, p. 100.

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인식'에 대해 언급하였다.

> 紙面關係로 그 例를 一 一히 여기에 紹介 못함이 遺憾이다. 무릇 從來의 大陸硏究란 너무나 觀念的이고 너무나 虛無맥랑한 것이었다[23]…… 나는 여기에서 結論하거니와 모름직이 우리는 우리의 從來의 觀念的 支那認識을 버리고 새로히 出發하야 새로운 工夫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24]

또한 그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아래와 같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 그 이유는 興亞大業의 成就를 目前에 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정말 大陸의 正體를 아는 것이 急先務인 까닭이다.

유치진의 만주여행의 목적이 '흥아대업'을 위한 '대륙 학습'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시기적으로 보아, 그의 만주여행의 계기 속에는 이미 친일의 정치적 의미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이 글이 그가 생애 최초로 외국에 가서, 그 곳 사람들이 자신이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느꼈던 실감과 충격들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2) 「개척(開拓)과 희망(希望) - 만주개척지(滿洲開拓地)를 보고서」[25]

유치진은 1942년 7월 30일 23시 37분, 합이빈(하얼빈)역을 출발

---

23) 유치진, 위의 글, p. 100.
24) 유치진, 위의 글, p. 101.
25) 유치진, 「開拓과 希望 - 滿洲 開拓地를 보고서 -」, 『매일신보』, 1942년 7월 30일~8월 5일자.

하여 용진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다.

> 차가 움즉이기 시작하니 차창에서 남쪽으로 이시가를 압도하는 듯한 거대한 근대식…… (7월 30일자)

위의 인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진은 "약진하는 신흥 만주국의 맥박을 느끼게 하는 거대한 근대식 건물"을 바라보면서 용진에 다다르게 되고, 이어 충경개척단으로 향한다.

> 이 일대는 천지개벽 이래 사람의 바자치를 그다지 보지못한 소위무주지대다. 사방 어느쪽을 바라보아도 끗업는 평야가 … 지망을 잡을 수 없다. … 여기는 소흥안령산맥의 분수령! 거대한 파도와가티 약간 굼실거린 이 고원지대의 등성이에 떨어지는 비 ㅅ방울은 동서 쌍방으로 갈려서 동으로는 흑룡강 서로는 … 강(송화강지류)로 흘러가는 것이다. (7월 30일자)

그가 흑룡강 부근의 충경개척단을 방문하여 받은 첫 느낌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래" 처음 본 "무주지대"라는 것이었다. "실오랭이가티 좁은 조선" 땅에 살다가 드넓은 만주평야를 바라다 본 유치진의 감격과 이 땅에 대한 관심은 이미 희곡 「흑룡강」(1941)에서도 드러낸 바 있다.

> "세상에서 흔이일커른 동화의 세계란 이런델까? 아무턴 …… 우리가 여태껏 이런곳을 두고 실오랭이가티 좁은 조선의산틈에 낑겨서 얼마나 … 하게 살어왓는지? 지낸일이 새삼스럽게 후회되며 조선현실이 우습게만 느껴진다. (7월 31일자)

그는 만주를 "동화의 세계"에 비유하고 있다. 이 때 유치진의 심중은 이미 "동궁대좌"의 열정을 넘어 주체적 야망으로 전위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부락이 가까워오니까 개척도로의 양측에 삼삼오오 가축의 떼가 놀고잇다. 이것은 물론 개척민이 방목하는 마소다. …… 흡사히 한폭의 그림과 가치 아름다운 풍경이다. (7월 31일자)

위와 같이, 유치진은 충경개척단 방문기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조의 찬사들로 장식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 목축 광경을 보면서도 "지구의 개척을 구태여 농사에 편중시킬 게 아니"라 "주축종농(이런 술어가 잇는지 모르지만)적 경영이 오히려 낫지 안흘까"(7월 31일자) 라는 생각을 한다. 그는 만주를 놓고, 유사제국주의자의 입장에서, 혹은 식민지 경영자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농촌 문제, 농민 문제에 대해 일말의 출구를 찾은 것에 대한 감회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

> … 조선농민은 수전조성에는 … 수한 재능을 가저 담배때 하나만들면 …… 거진 다 조선농민의 손으로 개척해냇다는 것이다.

유치진은 충경개척단 제1부락에서, 아래와 같이 조선농민들의 수전농사가 성공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금년은 어떠케해서라도 이수전농사를 성공해서 도작이 가능하다는 줄만알면 명년에는 이 일대를 수전화시켜 적어도 개척촌의 쌀양식만은 자작자급하겟다는 의향이엇다. 가능과 불가능의 양사품에서 〈가능〉을 발견하려 양년을 두고 애쓰는 모질고 끈기잇는 이 개척민의 심정에 제절로 나는 머리가 숙으러짐을 느낀다. (7월 31일자)

"수전농사"는 개척촌의 자급을 가능하게 하는 일대혁명에 해당한다. "충북, 경북 양도 출신"이 모여 이루어낸 집단개척단인 "충경개척단"에서 유치진이 본 것은 바로 "조선 농촌의 가능성" 혹은

"조선의 가능성"이었던 것이다. 같은 글, 1942년 8월 2일자에서는 충경개척단의 구성과 생활방식 등에 대한 세밀한 관심이 드러나 있다.

> 충경개척단은 여섯부락으로 형성되어 예정계획 육백호중에서 현재에는 아즉 사백구십호(인구이천오백팔십이명) 박게 입식안되엇다 각부락은 단체부 소재인 제일부락중심으로 동 서북으로 북두칠성과가티 적당한 … 을 두고 허터저잇다 부락과 부락사이는 조선리수로 십리내지이십리-그를 연결하는 대동맥으로써 폭넓은 연락도로와 … 전화가 걸려서 이 …의 총면적(…와 경지합하여) 일만이천정보가 한손바닥우에 노힌 듯이 유기적으로 호흡하고잇다
>
> 즉 이 여섯부락이 한 개의 집단개척단을 구성한다.
>
> 그러면 집단개척단이란 뭘까? 나는 여기서 집단 이를 설명해두련다.
>
> 원칙적으로 개척민은 세가지 종별로 나노여 이주시키고 잇다. 즉 집단 집합 분산이 그것인데 분산개척민이란 것은 정부의 …을 밧지안코 제힘으로 각기 이주하여 제대로사는 것을 이르는 것이오 집합개척민이라함은 정부의 원조로 오십호정도의 개척민이 한지구에 이주하는 것으로 특수행정기구를 형성하지안코 입식과동시에 만주국지방행정기구에 포합되어버리는 것이다.
>
> 그러나 집단개척단은 대개 삼백호정도로 동일개척지에 집단적으로 이주하는 것인데 부락건설기간중(약오개년간)은 만주국지방행정기구에 흡수되지안코 자주적인 특수행정을 영위하여 일종 지방자치단체 비슷하게 영농이며 경제조직을 협동적으로 집단중심으로 해나가다가 부락이 완전히 건설되면 만주국일반행정기구인 가촌제에 편입시킨다.
>
> 그래서 영농과 경제조직도 협동체에서 개인영농으로 이행시켜서 장래에는 자작농으로 창정하는 것이다.(이상개척민종별설명은 …무과…행 〈개척농민만주이주수인〉에 의함)
>
> 집단개척단은 원칙적으로는 삼백호단위로 하고잇지만 여태까지의 실적으로 선농에 잇서서는 오백호정도가 일단위로 되어잇다. 충경개척단이 지금 사배구십호까지 내포하고 잇고 그이상 확장하려는 것은 그 일례다. 전만에 현재 반도인집단개척단이 이 충경을 합하여 팔개단이

잇지만 대개가 이 북만무주지대에 자리를 잡았다. 그이유는 수백호의 개척민이 집단으로 입식해야하기 때문에 인구가 조밀한 남만가튼데서는 일단위로 된 광대한 경지를 손에 넛키가 어려울뿐더러 그보다도 아페 말한만주국북변진흥계획에 박자를 마처서 변방의 방비를 개척민으로써 철석가티 하자는데 큰 뜻이 잇기 때문이다."

위 글을 통해서 북만에 입식한 조선인 개척민들에 대한 일제 당국의 정책은 그들을 "협동체에서 개인영농으로 이행시켜서 장래에는 자작농으로 창정하는 것"이며, 또한 "변방의 방비를 개척민으로써 철석가티 하자는데 큰 뜻이 잇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인용은 "무장개척단"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충경개척단의 모습과 당시 '도적'이라 불렸던 '공비' 즉 공산당의 활동과 그에 대한 개척민들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글이 있어 흥미롭다.

이단의 서원단장(혜 … 출신) 더러 요즘치안이 어떠냐고 물엇더니 도적(공비계통)이 좀잇기는 잇는모양이나 요즘의 도적은 결코 인명을 해하지는 안코 양식가튼 것을 빼앗사가도 대가를 치러준다는 것이다

〈도적도 지각이 낫구려〉 하고 하도기특해서 우섯더니 단장은 비적도 견디지 못하여 제따는 선무적으로 나오는모양이라고따라웃는다 그리면서 〈도적이야 사람사는 데라면 아무데나 잇는것이고 공산당이야 경성시내에도 잇지안엇소?〉 한다.

그 소리는 만주라면 마적의 소굴인 듯이 녁이는 신경과민에 빠진 재조선인사를 꾸짓는어조다 나는 그의 명랑한얼굴에 마음을 노앗다

위 글을 통해, 유치진은 "만주라면 마적의 소굴인 듯이 녁이는" 조선인들의 편견을 물리치고, 만주로의 입식을 권유하는 심정을 깔고 있는 듯하다.

> 이상과가티 고난의 경로를 밟아온 이단에는 작년오월에 일백십삼호(오백이십구명)과 금년오월에 일백오십일호(칠백삼십이명)를 역시충북 경북양도에서 추가입식시켜서 그동안-본대입식이래 삼년간에 이년의 경사를지엇다 그러나 이제와서 그들에게 짐지어진 치안보다도 주택보다도 기후보다도 더큰과제가잇다 그것은 영농문제다.

유치진은 위와 같이 궁극적으로 영농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호미와 광이로 농사짓든" 조선 사람들의 농법 대신에 북해도에 맞게 개발된 기계식 "프라우 농법"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8월 4일자, 8월 5일자), "개척민의 생계"(8월 5일자)에 대한 염려와 함께 그 해결방안에 대해 언급하기도 한다. 충경개척단과 조양개척단을 돌아보던 유치진은 "화원의 물결에 떠잇는 이 부락들은 마치 이 무주지대에 솟아난 꿈의 왕국이다."(8월 5일자)라고 결론짓는다.

3) 「창성둔(昌城屯)에서」[26]

유치진은 만주국 수도 신경(新京)에 들렀다가 고산자(孤山子)에 있는 창성둔 부락에 관한 얘기를 S사무관으로부터 듣게 된다. 창성둔은 압록강 수력전기 댐 공사로 인해 만주로 이주하게 된 평북 창성군민들의 개척촌이다. 유치진은 이 창성둔을 꼭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여행기를 『국민문학(國民文學)』 1942년 10월호에 발표한 것이다.

> 나중에 알았지만 이 엄숙한 수염을 기른 선생이 교장이었다. 그는 창성둔의 상황을 듣자 "창성둔 말입니까? 나도 거기서 전근이 되었는데, 창성둔은 이 부근에서도 가장 모범부락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

26) 「昌城屯에서(日文)」, 柳致眞, 『國民文學』, 人文社, 1942. 10.

했다. 나는 안심했다. 그리고 몰래 신에게 감사하고 싶었다. 신은 결코 인간의 성의를 저버리지 않는 법이다.

위 글은 유치진이 안내를 부탁하려고 만난 고산자 국민우급학교(孤山子 國民優級學校)(조선계 초등학교) 교장 H와의 첫 대면에서 느낀 감정을 적은 글이다. 이 대목은 그가 얼마나 우수한 개척촌 답사를 바라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대개 만주인 농부의 독점물이었던 수레를 30대씩이나 가지고 있다는 창성둔의 얘기를 들으면서 유치진은 계속 가슴이 벅찬다. 이 지역은 창성둔, 안흥둔, 경기둔, 초산둔의 4부락(합계 273호)이 하나의 집합개척단을 형성하고 있다. 부락으로 들어가자, 부락은 언덕의 경사면에 바둑판 모양으로 구획 정리되어 동일한 모양의 집이 100호 정도 처마를 나란히 하고 서 있다.[27] 유치진은 이 부락의 집들 가운데 모범농가로서 표창 받은 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실로 작은 집이다. 자가용의 우물 손질과 닭장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만들어져 있다. 만주는 누런 먼지가 하늘 높이 치솟고, 봄부터 여름에 걸친 환절기에는 바람이 심하게 분다. 그럴 때의 준비로 우물에는 뚜껑이 잘 닫혀 있고, 겨울에는 영하 몇 십 도라는 혹한기의 준비로, 닭장의 출구를 방한설비가 되어 있는 외양간으로도 열어 두어 소와 함께 겨울을 견딜 수 있게 한다. 물론 마당으로 접한 곳에도 닭의 출구가 있다. 이것은 따뜻한 날의 외출용이다.

이렇듯 닭장에까지 만주의 기후풍토에 알맞도록 세삼한 주의를 기울여 창의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이 집뿐만이 아니다. 부락 전체가 새로운 토지에 적합한 새로운 생활의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자취가 무슨 일에서든 역력히 나타나 있다.

일례를 들면 이 둔(屯)의 메인 스트리트라고도 해야 할 中央幹道의

27) 유치진, 앞의 글, p. 3.

> 양측에 가로수를 만들 작정으로 백양의 가지를 잘라 심어 두었는데, 그 절단면이 정성스레 무엇인가로 감싸여져 있다. 다가가서 보면 면으로 붕대를 감아놓은 것이 아닌가! 겨울에 동상이 걸리지 않도록 한 마음 씀씀이일 것이다.
>
> 각 집의 뜰에는 땔감이 산처럼 있는 것도 눈에 띈다. 벌써 초봄부터 겨울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둔을 돌아보면 남의 일이지만 왠지 자신의 생활이 갑자기 풍부해진 듯한 느낌이 든다. 나는 만족한 마음으로 부락을 배회했다. 둔의 황혼은 좀체 지려고 하지 않는다.

유치진은 이 글에서 조선인 개척촌의 "유복한" 생활에 대한 감회를 서술하려고 애쓴 흔적을 보여준다. 그는 "개척사업"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만주에서는 논에만 기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현지답사를 통해 배웠으며, "반은 논, 반은 밭농사주의는 크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 창성둔의 오늘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말할 것도 없이 P와 같은 지도자정신에 헌신하는 관리와 李씨와 같이 고향의 유력자(앞으로 分寸계획에는 李씨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고향의 유력자를 함께 이주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를 비롯해, 道와 郡이 마지막까지 성의를 다해 준 선물이다. 지도자의 마음 하나로, 개척땅의 세계는 이렇게 다른 것이다.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치진은 창성둔에서의 하룻밤을 통해 조선인의 만주 이민을 통한 개척촌 건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그것이 단지 사업적 마인드만으로는 안 되고, 성실한 관리들의 자발적 헌신과 개척민 당사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건설의욕"에 크게 의지하고 있음을 설파

하고 있다.

이 글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장식되고 있다.

> 언제부터 잠이 들었는지 꿈결에 '이겼다! 일본'의 합창이 나의 베개 언저리에 희미하게 들려온다. 어디에서부터일까. 명랑하고 그리고 청아한 소리다. 문득 눈을 뜨자 이것은 꿈이 아니다. 이 부락 청년들 조기회(早起會)의 합창이다. 벌써 동쪽 하늘은 밝아오고 시계는 4시를 가리키고 있다.

은은한 친일적 색채를 배경으로 만주 개척촌에 대한 유치진의 세심하고도 뜨거운 관심을 드러내 보여준 것이 이 「창성둔(昌城屯)에서」라는 글이다. 이 당시 유치진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시인 박태일이 그의 저서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다. 그는 유치진의 동생인 시인 유치환이 "1940년 가솔을 거느리고 통영을 떠나 '이주'하여 5년 가까이 머물면서 '총무(總務)'로 일했던 중국 길림성 연수현 '자유이주집단 가신흥농회'의 성격과 그 실체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28] 그렇다면 유치진의 가족들이 이미 1940년부터 길림성에 이주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통해 볼 때, 유치진에게 있어 조선인 개척촌의 문제는 단지 조선 민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유치진 자신의 가족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현실적인 문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흑룡강 소재 조선인 개척촌의 실제

유치진 연구사에 비추어볼 때, 이제는 「흑룡강」을 보다 다양한

---

28) 박태일, 「경남 지역문학과 부왜활동」, 『경남·부산 지역문학연구』 I, 청동거울, 2004, p. 113.

스펙트럼을 통해 바라볼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만주라는 공간은 정치적, 이념적 문제만이 아닌, 다양한 원리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던 지대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흑룡강 소재 조선인 개척촌의 실제에 접근할 수 있는 구술 자료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930년대 흑룡강성 오상현 조선족 마을 형성과정을 주민들의 기억을 토대로 재구성한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술자들의 면담내용이 등장한다.

> 구술자: 배곯을 때도 있기야 있었지만은 기본상 여기는 풍년이지요. (다른 사람이 여기는 계속 풍년입니다) … 그것은 기본상 큰 걱정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러나 배곯을 때도 있었지요.
> 면담자: 그럼 어떻게 경상도 고향 이런 곳에서 형제, 친지들을 데리고 오시고 그랬어요?
> 구술자: 다 그렇게 데리고 왔지요. 그때 당시에. (오상현 민락조선족 마을 집단 구술 자료)[29]

'흑룡강성 오상현 조선족 마을'은 만몽회사가 안가역 부근에 농장을 개척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방 전까지 '안가농장', 혹은 '500호 농장'으로 불렸던 흑룡강성의 대표적 조선인 개척촌에 해당한다.[30] 위의 구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에서 생존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만주로 이주해서 개척촌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첫째가는 실감은 최소한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마을 주민들의 구술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현상이다.[31] 좀 더 자세하게 밝힌 구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9) 김왕배 이수철, 「1930년대 만주의 조선족 마을 공동체 – 흑룡강성 오상현 조선족 마을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김도형 외, 『식민지시기 재만조선인의 삶과 기억』, 도서출판 선인, 2009, p. 324.

30) 앞의 논문, p. 331 참조.

> 이십 마지기 가져다 바치고 남는 것 쪄 먹으라 하고, 그것 먹고 모자라면 좁쌀, 기장쌀, 차전쌀 이런 것은 맘대로 가져다 먹으라고 하지요. 회사에서 가져다 쟁여 놓고 이것을 맘대로 가져가라 하지요. 농사지은 것에서 좁쌀 값, 쌀값을 제하지요. … 일보러 나올 것도 없어요. 만몽개척조합이라는 곳에서 다 해줘요. 호구고 뭐고 다 해줘요. (이O락 부부 구술자료)[32]

위 구술 자료가 들어 있는 논문의 저자들은 결론적으로 1930년대 만주의 조선족 마을 공동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 기억을 통해 살펴본 오상현의 조선족 마을 공동체는 '희망의 공동체'였다. 상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었고, 하층의 사람들에게는 식민지 조선에서는 이룰 수 없었던 자신의 땅을 갖고 농사를 지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또 다른 '희망의 공간'이었다. 이러한 상호의 희망이 당시의 사회, 자연환경과 어울려 구성된 '사회적 공간'이 오상현의 조선족 마을이다.[33]

만주라는 공간을 일제의 식민 지배라는 정치적 안목에서만 바라보거나, 단순히 지배와 저항만이 존재하는 대립의 공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산업 기술적 측면, 각 주체들의 선택, 등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 파악하면서, 만주를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공간', 혹은 '일상인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 인식의 지평을 넓힌 결과,[34] 연구자들이 얻은 결론은 위와 같이 지나친 낙관론에 가까운 것이었다.

---

31) 앞의 논문, p. 335.
32) 앞의 논문, p. 335.
33) 앞의 논문, p. 349.
34) 앞의 논문, p. 348 참조.

이와 같이, 연구자가 시각을 달리하여 바라본 결과, 만주의 조선족 마을 공동체가 '희망의 공동체'로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고는 그것이 만주가 지닌 '헤테로토피아적 특성'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5. 헤테로토피아로서의 만주

> 거대한 공간, 노서아 소설들이 우리를 누르는 것도 그것들이다. 과거 여러 세기 동안 대국이 해동 반도를 누른 것도 그들의 거대한 공간의 농간이었을 것이다. 그런 대륙, 그런 공간을 향해 내 차는 밤을 가르고 달아난다.[35]

소설가 이태준은 만주 기행문을 쓰면서 만주를 그 무엇보다 '거대한 공간'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당시, 지식인들이 만주 일대를 여행하면서 가졌던 첫 번째 실감은 놀랍고 낯선 '공간감각'이었다. 좁은 조선 땅에서 벗어나 드넓은 만주 벌판을 접하면서 식민지 지식인들은 새로운 희망을 보았고, 만주를 '갱생의 기점'으로 간주하기에 이른다.

> 우리들이 북간도라고 부르는 동만(東滿) 지방은 세 개의 보고(寶庫)를 가지고 있으니 용정 평야와 국자가(局子街) 평야와 두도구(頭道溝) 평야가 그것이다. 이 세 평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야말로 매년 5백만 석 이상씩 일본에 마이너스 당하고 부족 되는 조선 내지의 1천 5백만 중농(中農) 이하의 무산 농민의 양식을 공급하는 거대한 창고인 것이다. 나는 차창 밖에 전개되는 녹색의 기름이 흐르는 용정 평야를 탐하여 바라보며 그 위에 질서와 생장의 자유의 토대에 세워질 새로

35) 이태준, 「滿洲紀行」, 최삼룡 · 허경진 편, 『만주기행문』, 도서출판 보고사, p. 147.

> 운 내일의 간도를 그려보면서 그리고 여기야말로 우리들의 갱생의 기점이 아니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며 아름다운 희망과 환상 속에 완전히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친절한 차장은 나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 주었다.[36] (강조-논문 저자)

시인 김기림이 위 예문에서처럼 북간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희망과 환상" 속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그의 백일몽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처럼 만주라는 공간은 정치적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매우 다양한 원리가 혼합적으로 작동하던 사회였다. 당시, 만주의 조선인 농촌공동체는 일제의 제국주의적, 수탈적 농촌정책에서 다소 비껴난 지점이 있었고, 그것은 헤테로토피아적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푸코에 의하면, 헤테로토피아는 유토피아를 비추는 거울 이미지로서 존재한다. 그는 '실제 장소를 갖지 않는 배치'[37]로서의 '유토피아' 대신 '위치를 가지는 유토피아들 utopies localisees'로서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제시했다.[38] 그 가운데서도 그는 식민지들이야말로 "전 지구적 수준에서 공간의 조직화라는 문제와 관련해 헤테로토피아로의 역할을 수행했다"[39]고 보았다. 그 예로서 '17세기에 아주 완벽하게 다른 장소인 아메리카에 영국인들이 건설했던 청교도 사회'와 '남아메리카에 세워진 예수회의 특별한 식민지'를 떠올렸다.

푸코는 식민지를 '보정 compensation의 헤테로토피아'로 분류하면서 이것은 매음굴처럼 환상 공간을 만들어내는 '환상 illusion의 헤테로토피아'와는 반대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그는 식민

---

36) 김기림, 「間島紀行」, 최삼룡 · 허경진 편, 위의 책, pp. 97-98.
37) 미셸 푸코, 이상길 역, 「다른 공간들」,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p. 47.
38)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위의 책, p. 13.
39) 미셸 푸코, 앞의 논문, 위의 책, p. 56.

지를, 나머지 공간에 대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정의 헤테로토피아'로 명명하면서 그것을 '완벽하고, 주도면밀하고, 정돈된 또 다른 공간' 으로 보았던 것이다.[40]

> 헤테로토피아들은 다른 모든 공간에 대한 이의제기이다. 그것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의제기를 수행할 수 있다. 아라공이 말했던 매음굴처럼 나머지 현실이 환상이라고 고발하는 환상을 만들어냄으로써, 아니면 그 반대로 우리 사회가 무질서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고 뒤죽박죽이라고 보일 만큼 완벽하고 주도면밀하고 정돈된 또 다른 현실 공간을 실제로 만들어냄으로써, 한 동안-특히 18세기에-식민지는 적어도 사람들의 계획 속에서는 바로 이런 식으로 작동했다. 물론 이 식민지들이 커다란 경제적 유용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상상적 가치들이 결부되어 있었으며, 이 가치들은 확실히 헤테로토피아의 고유한 위광에 빚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17세기와 18세기 영국의 청교도 사회는 미국에 절대적으로 완벽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시도했다.[41]

야마무로 신이치는 이 외에도 만주가 '헤테로토피아' 개념에 적합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42] 만주가 당시 일본제국의 여러 식민지들 중에서도 특별히 헤테로토피아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 당국이 만주에 더한 "상상적 가치들" 덕분이었다. 일본제국은 자신들의 다른 모든 식민지들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서 헤테로토피아로서의 '만주국'을 꿈꾸었다. 만주는 일본에게 있어 경제적 유용성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상상적 가치들을 결부시켜 놓은 공간이었다. 이 상상적 가치들은 재만 조선인들의 상상력을 또한 자극했고,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 친일'이라는 도주로를 스스로 선택하도

---

40) 미셸 푸코, 위의 책, p. 57.
41) 미셸 푸코, 위의 책, p. 24.
42) 야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역, 『키메라 -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09, p. 18.

록 만들어주었던 것이다.

유치진의 만주 소재 희곡 「흑룡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간 만주 소재 문학작품에 부과되어온 친일/항일의 이항대립적 의미탐색을 넘어서서,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복수적 의미를 드러내는 데 있어 '헤테로토피아로서의 만주' 개념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만주를 다룬 조선의 작가들은 농촌문제가 지니고 있는 생명성, 지속가능성 등의 개념에 힘입어 농본주의적 이상을 천명하고 있는 만주에서 식민지 조선의 미래적 비전과 가능성을 발견했음에 틀림없고, 일제가 헤테로토피아적 공간, 만주에 부여했던 상상력은 조선의 작가들에게 급격하게 친일로 돌아서는 명분을 선사해 주었던 것이다. 제국주의가 디자인한 공간에서 유토피아의 거울 이미지를 발견한 식민지인들의 내적 갈등이야말로 만주 소재 문학작품들의 숙명적 딜레마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三千里』, 『人文評論』, 『매일신보』, 『國民文學』, 『오마이뉴스』
(김태진 외, 이재명 외 편, 『해방전공연희곡집 (1940~1945)』 4권, 평민사, 2004)의 별쇄본 『유치진 희곡』

2. 논문

곽은희, 「틈새의 헤테로토피아」,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70, 2014, pp. 83-114.
김미경, 「상상계와 현상계의 사이: 헤테로토피아로서의 하얼빈」,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인문연구』 70, 2014, pp. 161-206.
노상래, 「헤테로토피아, 제3의 눈으로 읽는 만주 – 현경준의 「유맹」을 중심으

로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인문연구』70, 2014, pp. 1–48.
문경연,「1940년대 국민연극과 친일협력의 논리 : 유치진을 중심으로」, 한국드라마학회,『드라마연구』29, 2008, pp. 47–82.
서재길,「나운규 영화와 만주 – 〈사랑을 차저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인문연구』70, 2014, pp. 49–82.
손승회,「다치바나 시라키(橘樸: 1881~1945)와 滿洲國 建國 구상 – 헤테로토피아(Hetertopia)로서의 만주를 꿈꾸며 –」, 동아인문학회,『동아인문학』28, 2014, pp. 339–376.
이상우,「1940년대 현대극장과 친일극」, 한민족어문학회,『한민족어문학』38, 2001, pp. 361–392.
이영희,「일본소설 속의 헤테로화(化)하는 공간, 만주 – 투영(投影), 반전(反轉), 이질성(異質性)의 병치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인문연구』70, 2014, pp. 115–138.
이재명,「유치진 희곡의 인물형상화 연구 – 해방 전에 발표한 장막극을 중심으로 –」, 한국연극학회,『한국연극학』28, 2006, pp. 193–222.
홍은숙,「A Journey into Heterotopia: Non-linear and Discursive Spaces in the Manchurian Western The Good, The Bad, The Weird and the Spaghetti Western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인문연구』70, 2014, pp. 139–160.

3. 단행본

김기훈,「만주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 제국내 이민 intra-colonial migration 정책의 유산」, 한석정・노기식 편,『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2008.
김왕배・이수철,「1930년대 만주의 조선족 마을 공동체 – 흑룡강성 오상현 조선족 마을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김도형 외,『식민지시기 재만조선인의 삶과 기억』, 도서출판 선인, 2009.
김재석,「「흑룡강」에 나타난 계몽선전의 기법과 작가적 의미」,『한국연극학의 위상』, 태학사, 2002.
미셸 푸코, 이규현 역,『말과 사물』, 민음사, 2012.
_____, 이상길 역,「다른 공간들」,『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박태일,「경남 지역문학과 부왜활동」,『경남・부산 지역문학연구』Ⅰ, 청동거울, 2004.
야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역,『키메라–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09.

유치진: 구술, 유민영: 정리, 「극단 현대극장의 탄생 전후」, 『동랑유치진 전집』 9, 서울예대출판부, 1988.
이상우, 『유치진 연구』, 태학사, 1996.
_____, 『근대극의 풍경』, 태학사, 2004.
_____, 『식민지 극장의 연기된 모더니티』, 소명출판, 2010.
임종국, 「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
최삼룡 · 허경진 편, 『만주기행문』, 도서출판 보고사, 2010.

(**투고일**: 2015. 7. 4 **심사완료일**: 2015. 7. 27 **게재확정일**: 2015. 8. 5)

백승숙
소속: 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양학부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전화번호: (053) 810-7823
전자우편: whitepanza@yu.ac.kr

[Abstract]

Manchuria, Anxiety of Discourse, or Heterotopia
- Focusing on the *Heukryong Gang*, You Chijin's Play on Manchuria, in the 1940's-

Baik, Seung-Suk

This paper is to redefine the concept of Manchuria with the play *Heukryong Gang*(*Heukryong River*) written by Yu Chijin in colonial Korea, in 1941. *Heukryong Gang* aimed to encourage the idea of 'national theatre' as suggested by imperial Japan.

Yu Chijin used the binary of life/death to advocate the Korean immigrants who could not but keep their lives as peasants. It can easily be judged as a pro-Japanese work but needs to be illuminated under the light of contemporary Manchuria. We should try to find plural meanings of Manchuria instead of the typical binary.

Heterotopia exists as a mirror image of Utopia. Imperial Japan had planned Manchuria as an agrarian Utopia, different from other colonies. Considering the Yu Chijin's essays on the trip to Manchuria or visiting the Korean settlements, we can find that You Chijin dreamt of an ideal agrarian community in Manchuria.

You Chijin wanted to rely on the point that Manchuria was deviating from the colonial and extractive agrarian policies of imperial Japan. He saw the mirror image of Utopia, namely 'Heterotopia' in Manchuria.

Key words: Manchuria, Heterotopia, You Chijin, Agrarian settlement, *Heukryong Gang*